



“안보이는 곳에서도 무한 노력” 김경문감독, 테임즈 무한칭찬

16경기 8홈런·4도루에 호트…“성품도 착해”

NC 에릭 테임즈(29·사진)는 올 시즌 공·수·주에서 못 하는 것이 없는 선수로 업그레이드됐다. 20일까지 16경기에서 8홈런을 때려냈고, 24타점을 쓸어들었다. 장타율이 무려 0.929에 달한다. 여기에 베이스러닝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써 4도루다.

테임즈의 가치는 눈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NC 김경문 감독은 테임즈의 노력에 대해 엄지를 치켜세웠다. 김 감독은 21일 마산 삼성전에 앞서 “테임즈가 한국에 와서 수비와 공격 부분이 더 좋아졌다”며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도 많이 한다. 경기가 끝나도 구장에 남아 자신의 타격폼을 정립하고 들어간다. 그 덕분에 지금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루에 대해서도 “좋은 발을 가지고 있었다”며 “꼭 도루가 아니어도 좋은 베이스러닝을 보여주고 있다. 짧은 안타에 1루에서 3루까지 간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다. 테임즈는 지난해보다 몸집이 더 커졌다. 원래도 근육질의 몸매였지만, 올해는 더욱 탄탄해졌다. 김 감독은 “지난 시즌을 겪으면서 본인이 생각한 부분”이라며 “수비를 하면서 한 시즌을 치르다보니 후반기에는 살이 빠진다는 걸 느낀 것이다. 그래서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살도 좀 찌우고 웨이트트레이닝을 해서 몸을 강하게 만들어온 걸로 안다”고 밝혔다.

테임즈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실력으로 리그를 압도하고 있다. 김 감독은 “테임즈의 스윙이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빠른 배트스피드와 임팩트 순간 힘을 쓰는 능력이 탁월하다”며 “성품도 좋다. 착하다. 동료들과도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마산 |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 빅마우스

●지금은 ‘힐링’을 바라겠지만, 곧 ‘킬링’을 안겨줄 수 있는 팀이다. (SK 김용희 감독, 신생팀 kt가 시즌을 치르면서 점점 강해질 것이라며)

●애들이 뽀빠 차려냈다고 하더라고. (넥센 송신영. 팬클럽 회원들이 3200일만의 선발승을 축하하기 위해 다과를 뿌집하게 선물로 보내왔는데 팀 후배들이 거창하게 진열해놓았더라)

●끝내기 홈런 직접 본 것도 야구하고 처음이라니까. (두산 김현수. 18일 잠실 롯데전에서 최주환이 끝내기 홈런을 치는 순간 2루에서 전율을 느꼈다고 말하다가 자신은 은퇴 전 끝내기 홈런 한번 칠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

●잘하고 있으니까 좋은 걸로. (NC 김경문 감독. 에릭 테임즈의 몸집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다가 야구선수들이 웨이트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

●입 닫고 귀 닫아야죠. (롯데 이종운 감독. 롯데가 반발력의 범위를 초과한 공을 일부러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굳이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미로)

KBO 육군의 야구경기 활성화 업무 협약

KBO가 23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안중근장군실에서 야구를 통한 협력증진 및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한다. 육군의 야구경기 활성화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최전방 GOP 전 부대에 티볼과 연식야구 용품을 보급하고, 육군 전 부대로 늘려갈 예정이다. 또 올해 울스타전에 장병들을 초청한다. 협약식에는 김요한 육군참모총장과 구본능 KBO 총재 등이 참석한다.

넥센 ‘SOS 어린이마술’ 학생 시구·시타자 선정

넥센은 22일 목동 두산전에서 아동양육시설인 ‘서울 SOS 어린이마술’ 학생들을 시구·시타자로 선정했다. 야구선수들이 꿈인 두 학생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하고, 안정 제작 및 치아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두산 내야수 잭 루츠·유민상, 1군 엔트리 등록

두산 내야수 잭 루츠(29)와 유민상(26)이 21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루츠는 허리 통증으로 8일 1군 엔트리에 말소된 뒤 13일 만에 복귀했다. 유민상은 유승안 경찰야구단 감독 아들이자, LG 유원상의 동생으로 2012년 두산 입단 후 2013년과 2014년 경찰야구단에서 활약했다. 유민상이 1군 엔트리에 등록된 것은 처음이다.

4.91개 투구 상대…올해는 ‘준석놀이’?

〈타석당 평균 투구수〉

베이스볼 브레이크

| 공 많이 던지게 하는 타자와 공 적게 던지는 투수



구분	순위	선수(소속)	이닝당 투구수
최다	1	탈보트(한화)	20.63
	2	시스코(kt)	20.15
	3	한현희(넥센)	20.11
	4	박세웅(kt)	19.78
	5	옥스프링(kt)	19.64
최소	1	손민환(NC)	13.84
	2	윤희상(SK)	15.26
	3	소사(LG)	15.31
	4	마야(두산)	16.09
	4	장현삼(삼성)	16.09

※20일 현재

구분	순위	선수(소속)	타석당 투구수
최다	1	최준석(롯데)	4.91
	2	이병규(LG·7번)	4.73
	3	박정권(SK)	4.51
	4	이종욱(NC)	4.37
	5	최정(SK)	4.33
최소	1	정범모(한화)	3.49
	2	나성범(NC)	3.51
	3	이대형(kt)	3.54
	4	이재원(SK)	3.57
	5	김현수(두산)	3.58

※20일 현재

▶ 롯데 최준석은 타석당 4.91개의 투구를 보면서 상대 투수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투구수가 늘어날수록 타자와 투수의 수싸움도 치열해진다. 스포츠동아DB

“3억 투자 못해”…‘재계 11위’ kt 모기업의 불편한 진실

A구단과 알짜트레이드, 지금 거부 무산
타 구단 “만약 성사됐다면 kt에 큰 도움”
황창규 회장 취임후 ‘투자 약속’ 물거품

제10구단 kt가 핵심전력을 보강할 수 있는 트레이드 기회를 잡지도 현금 3억원 집행을 망설여 무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일반인에게 3억원은 큰 돈이지만, 야구단 운영에선 주전 선수 한 명의 연봉으로 계산할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스포츠동아 취재 결과 kt는 3억원의 현금 지급을 거부하며 알짜 트레

이드 기회를 놓쳤다.

kt는 20일 LG와 1대2 트레이드에 합의하기 이전 A구단과 선수 교환에 대해 매우 깊이 있는 의논을 했고, 합의 직전까지 갔다. A구단은 주전 경쟁에서 밀린 백업 야수 2명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 kt에 유망주 투수 1명과 트레이드를 제안했다. kt는 ‘트레이드 불가 핵심 유망주’라고 답했다. A구단은 다른 팀도 아닌 신생팀과의 트레이드이기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단,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젊은 투수 한 명에 현금 3억원으로 수정 제안을 했다. 그러나 kt는 최종적으로 ‘현금 지급은

어렵다’고 답해 무산됐다.

kt와 A구단의 트레이드 불발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타 구단들도 관심을 보였고,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구단 관계자는 “현금으로 조건이 수정되자, kt 실무진이 매우 기뻐했고 코칭스태프도 크게 반겼다고 들었다. 그러나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무산됐다. 협상을 주고받았던 양측 실무자 모두 당황했다”며 “현장 코칭스태프의 실망이 매우 컸다”고 귀띔했다.

kt의 모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4월 발표한 재계순위(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11위(공기업 제외)의 대그룹이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대규모 명예퇴직을 통한 감원, 계열사 매각 등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1년여 만에 계열사는 56개에서 49개로 줄었다. 이석재 전 회장 시절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던 kt 위주에 대한 그룹 내 시선도 달라졌다. 내실 있는 투자도 있었지만, 외국인 선수 선발과 외부 FA(프리에이전트) 영입 등에서 대규모 자금 투입은 없었다.

kt 구단 관계자는 “현금은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무산됐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kt는 선수단 지원 등에선 타 구단에 버금가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업의 영향으로 적극적 투자를 망설이면서 좋은 기회를 날렸고, 현장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맘 바뀐 시장님, 자리바뀐 회장님, …NC·kt의 가시밭길 아십니까?

공통과 마법사의 첫 발걸음

3 바뀐 시장, 바뀐 회장

전 박완수시장 야심에 NC 꿈의 구장 무산
kt 이석재 전회장 사임…통큰 투자 물거품

마음이 바뀐 시장, 새로 취임한 회장. 제9구단 NC와 제10구단 kt는 바뀐 시장과 바뀐 회장으로 인해 1군 데뷔와 함께 큰 어려움을 맞이했고, 이 같은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NC는 공개경쟁 없이 급하게 결정된 연고지 때문에, kt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영진이 교체되는 기업 속성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2013년 4월 2일 역사적인 제9구단 NC의 1군 데뷔전이 마산구장에서 치러졌다.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러나 경기 시작 직전 ‘우~!’하는 소리의 야유가 경기장을 메웠다. 오색 불꽃쇼, 공통기사단의 퍼레이드가



제9·10구단으로 KBO리그에 뛰어든 NC와 kt는 창단 당시와 달리 새롭게 바뀐 창원시장과 그룹 회장의 지원 미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완수 전 창원시장(왼쪽)의 약속 번복으로 촉발된 NC의 새 구장 건설 지연은 안상수 현 창원시장의 취임 이후로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kt 황창규 회장(오른쪽)은 전임 이석재 회장이 선임한 시장과 단장을 모두 바꾸는 등 야구단의 불안한 1군 데뷔를 방지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박수와 탄성이 넘쳤지만 딱 10초 동안은 야유에 욱설까지 터져 나왔다. 박완수 당시 창원시장(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소개될 때였다.

2011년 엔씨소프트와 창원이 제9구단의 운

영 기업과 연고도시로 확정된 직후 박 전 시장은 “최고의 경기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1차 외부용역 결과 창원종합운동장과 마산종합운동장이 최적의 새 야구장 부지로 꼽혔다. 특히 마산종합운동장은 보조경기장이 없어 국제대회를 치르기에 시설이 부족했고, 창원시와 통합으로 그 쓰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위해 ‘시청→창원, 도청→마산, 야구장→진해’라는 카드를 꺼냈다.

교통 접근성 및 부지 확보 등에서 난제가 널린 진해에 새 야구장 건설을 밀어붙이며 영터러 용역조사로 발표했다. 이후 시장이 바뀌면서 야구장 후보지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3년여의 시간이 허망하게 흘렀다. 2016년 개막전을 최첨단 시설의 새 야구장에서 치르겠다는 약속의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여전히 NC의 꿈의 구장은 기약이 없고 신기

투처럼 멀기만 하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박 전 시장은 경남도지사 도전 실패 이후 ‘낙하산시장’라는 비난 속에서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변신했다.

kt는 2013년 1월 부영그룹과 치열한 경쟁 끝에 제10구단의 주인이 됐다. 이석재 전 kt 회장은 통 큰 투자를 약속했다. 아마추어 야구에 100억원 후원도 약속했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이후 검찰수사 등의 압박이 이어졌고, 이 전 회장은 그해 11월 사임했다. kt의 창단 시도 무기한 연기됐다.

현 황창규 회장은 취임 이후 이례적으로 야구단의 대표이사와 단장을 모두 교체했다. ‘1군 데뷔 직전 특급 FA(프리에이전트)’를 영입하겠다’고 약속했던 전 경영진은 모두 팀을 떠났고, 모기업의 대규모 감원과 구조조정 속에 kt는 협메가 1군 데뷔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